

# “소상공인 살리자” 국내 최대 ‘9월 동행축제’ 개막

내달 28일까지 광주·전남 등지에서 추석명절 맞이 경제활력 캠페인 전통시장 장보기 한마당 등 다양한 특산물 판매전·공연·경품 이벤트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광주·전남 등 전국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28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9월 동행축제가 8월28일부터 9

월28일까지 32일간 열린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동행축제에 발맞춰 광주·전남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먼저 동행축제 기간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지역 중소·소상공인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특산물 판매전’을 진행한다.

오는 9월5일 추석맞이 광주 전통시장 장보기 한마당(9월5-6일)을 시작으로 1913송정역시장 가을맥주축제(9월7일),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지역특산물 판매전(9월13-22일)서 지역 우수 특산

품을 행사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소담스퀘어광주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해 색다른 볼거리와 함께 우수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지역 대표상권과 전통시장에서 행사, 공연, 경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송정역세권은 난장콘서트(9월7일), 진도남문로상권은 홍주토크 콘서트(9월27일), 해남원도심상권은 추석사은행사(9월2-8일)와 땅끝달달 문화야행(9월27일), 순천원도심상권은 썸머 나이트(9월 첫주)를 연다. 동구대인시장

은 구매영수증 이벤트(9월12-14일), 나주목사골시장은 어린이 장보기 체험(9월24일), 고흥전통시장은 고객 경품행사(9월11-12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은 칠폭폭죽놀이(9월28일), 장흥정남진토요시장은 한가위행사(9월12일), 함평전지전통시장에서는 고객 경품행사(9월12일)를 개최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9월 동행축제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향토기업이 참여한다.

KBC광주방송과 광주은행, 프로축구 단 전남드래곤즈, 보해양조가 동행축제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의 메시지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 스타트업을 넘어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느린먹거리, 갯소년, 쭈을땃네이쳐 등도 자사 제품을 동행축제 기간 할인판매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동행축제 기간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 특가할인, 동행 특가전 등 풍성한 소비축제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해 중소·소상공인 제품 기획전을 5월(5곳)보다 많은 12곳에서 열린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 광주은행 “100만원 모으면 우대금리 제공”

‘도전 골든100적금’ 출시

광주은행은 100만원을 모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인 ‘도전 골든100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전 골든100적금’은 개인 고객(1인1계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적립한도 2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6개월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단 최초 가입금액은 0원으로 신규되며, 추가 납입은 예금 전화화면의 ‘입금하기’ 버튼을 통해 매월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그 외의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당·타행 계좌이체, 자동이체는 모두 제한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고, 우대금리 조건은 △100만원 이상 적립 후 만기해지시 연 3.0%p(포인트) △최근 1년 동안 당행 정기예금 및 적금 계좌를 보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연 3.1%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1%(기본 연 1.0%)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신상품은 총 1만좌 한도로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첫 입금 시 더벤트 커피쿠폰 100% 지급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대형마트,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증가

이마트, 건강식품세트 전년비 45%↑ 홈플러스, 사전예약기간 ‘4일’ 늘려 롯데마트, 전체10%↑·신선식품 주력

유통업체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의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해당기간 건강식품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동기 대비(2023년 8월14일~9월1일, 19일간) 무려 45% 가량 증가했다. 이 중 홍삼·인삼세트는 106%라는 고신장을 기록했다. 이는 장마와 폭염, 열대야 등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식품 선물세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건강식품 선물세트 수를 지난 추석 대비 약 15% 늘렸다. 올해 판매하는 건강식품 선물세트 상품 수만 100여가지가 넘는다. 고물가 기조에 맞춰 3~5만원대의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도 작년 추석대비 20% 가량 확대했다.

홈플러스의 사전예약 기간 내 선물세트 매출도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32일간 사전예약 주요 상품군 매출 신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추석 사전예약 기간



대형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지난해 추석 동기 대비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을 통해 추석 선물을 미리 구매함으로써 비용을 최대 50% 경감하는 등 명절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 제공**

(2023년 8월10일~9월10일)과 비교해 △배 세트 65% △굴비 세트 82% △जू류 세트 81% △건강세트 11% △잡화세트 47% 등이 크게 신장했다. 올해 설 사전예약 기간(2023년 12월21일~2024년 1월21일)과 비교하면 △배 세트 102% △굴비 세트 43% △건강세트 29% △잡화세트 10% 등이 신장률 상위 품목을 차지했다.

홈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을 지난해 추석 세트 사전예약 판매 시작 시점보다 4일 앞당겨 총 44일간 진행했다. 전체 품목 수는 지난해보다 4% 늘리고, 3만원대 이하 상품은 물량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20%

늘렸다.

롯데마트 역시 사전예약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매출을 전년 추석 동기(2023년 8월 13일~9월 6일, 25일간)와 비교해본 결과 △선물세트 전체 10% △과일세트 30% △축산세트 10% 등으로 신장했다. 롯데마트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어렵고 울추석이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일러 농산물 품질 관리가 상황에 따라 더위에 강한 품종을 선물세트에 기획하고 하우스 배 선물세트를 운영하는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품질을 높였다. **나다운 기자**



28일 기아는 전남도립대학교에 기아 봉고 EV 특장밴 2대를 실습용 교보재로 기증했다. **기아 제공**

## 기아, 지역인재 성장 지원 ‘실습용 전기차’ 기증

전남도립대에 봉고EV 2대 전달

기아는 28일 실습용 교보재 차량을 전남도립대학교에 기증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미래 모빌리티 전문인력으로 성장을 돕고 있다.

차량 증정식은 이날 오전 전남도립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기아 박병석 특수차량연구실장이 전남도립대학교 조명래 총장에게 ‘기아 봉고 EV 특장밴’ 2대를 전달했다.

앞서 전남도립대학교와 기아는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학생 인턴십, 일학습훈련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전남도립대학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의 교보재로 사용될 차량을 전달하게 됐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통화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가했지만, 고가의 차량과

부품 가격으로 그동안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기아 봉고 EV’ 기증으로 전기차와 하이테크 차량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 실습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EV를 통한 다양한 실습과 경험으로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기아는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남도립대에 기증된 ‘기아 봉고 EV’는 봉고3의 전동화 모델로 고객의 목소리 및 친환경 정부정책을 반영해 출시됐으며, 소상공인들의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트럭으로 211km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 **박소영 기자**

## 중진공 호남연수원-GIST AI대학원, 디지털전환 협약

교육 지원 통해 AI 활용 촉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28일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GIST AI대학원)과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전환 및 AI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과 김종원 GIST AI대학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AI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의 AI 활용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호남지역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전환에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호남연수원과 GIST AI대학원은 호남 지역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과정 개발능력, 교육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 AI 전문인력양성에 힘을 모을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AI 연수과정 공동 기획·운영 △스마트공장 배움터(중진공), MobileX Station(GIST AI대학원) 등 교육시설 등 공유 △양 기관 정책사업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AI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인류의 삶을 획기

적으로 바꿔 놓을 게임체인저로서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AI를 활용한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GIST AI대학원과 함께 AI 미래 인재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연수원은 광주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29개 연수과정을 운영 및 953명의 AI·스마트공장 관련 미래인재양성을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디지털 트윈 등 고도화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AI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